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미술 사례 연구

서울시 홍제유연, 도킹서울, SAM932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Public Art for the Re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Seoul, Hong Je-yeon, Docking Seoul, and SAM932 Project-

주 저 자 : 현병은 (Hyun, Byung Eun)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석사과정)

공 동 저 자 : 이재규 (Lee, Jae Kyu)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교수

교 신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nagoya-jang@hanmail.net

<https://doi.org/10.46248/kidrs.2025.1.199>

접수일 2025. 02. 04. / 심사완료일 2025. 02. 27. / 게재확정일 2025. 03. 10. / 게재일 2025. 3 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impact of public art on urban regeneration by analyzing three public art projects implemented in Seoul: Hongje Yuyeon, Docking Seoul, and the SAM932 Project.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explores three key aspects: first, whether public art harmonizes with various urban elements to enhance the overall value of the area; second, how effectively it conveys the identity and value of the community to the public; and third, how local residents were engaged in the project from the early planning stages. Furthermore, by analyzing how public art considers political, racial, and social equity and identifying commonalities between them, the study aims to propose strategies for the more effective utilization of public art in futu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Keyword

Public Art(공공미술), Urban Generation(도시재생), Urban Development(도시 개발)

요약

본 연구는 서울에서 시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도시재생에 기여한 사례인 ‘홍제 유연’, ‘도킹 서울’, ‘SAM932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공공미술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첫째, 공공미술이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둘째, 지역의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셋째,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공미술이 정치적, 인종적,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식과 그 공통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에서 공공미술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둔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도시재생과 공공미술

- 2-1. 도시재생 활성화
- 2-2. 공공미술의 이해
- 2-3.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공공미술의 특성

3. 사례 연구

- 3-1. 사례 선정

3-2. 사례 분석의 틀

3-3. 사례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은 초기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로 환경적 변화를 추구해왔으며,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해 환경적·사회적 변화를 함께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지역활성화에 있어서 활력을 불어넣는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시재생에서의 공공미술은 과거 공적 공간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술을 조화시키는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를 창출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주민 주도의 문화 형성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공공미술이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요소가 되는 이유는 현대 공공미술이 가진 효과에 대한 연구발표인 김혜진(2010)¹⁾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공미술은 도시 공간에 새로운 정체성과 매력을 부여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들이 공공미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 결속력을 높인다. 경제적으로는 관광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공미술은 도시재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요한 수단이자 동력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미술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며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의 정의 및 역할의 측면에서 공공미술이란 무엇인지, 도시재생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적용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세 가지(홍제유연, 도킹서울, SAM932)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미술이 도시 공간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 도시

재생에 있어서 공공미술과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에 있어 역할이 가능한 공공미술의 특징을 도출하고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사례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노후화되고 버려진 공공공간에 공공미술을 적용한 사례 중, 서울시 “내 손 안의 서울”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사례 3곳을 대상으로 한다.

2. 도시재생과 공공미술

2-1. 도시재생 활성화

2-1-1.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낙후된 도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사회적 연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이다.²⁾ 반면, 전통적인 개념의 재개발(Redvelopment)은 낙후된 지역의 도시 경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터 로버트는 도시재생을 “일정 도시 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전”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을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의 활력을 부활·회복시키며, 각 가치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도시를 유지 성장시키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재생의 철학과 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도시와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1) 김혜진,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 한국콘텐츠학회지, 2010. 10(8), p.201

2) Graeme Evans and Phyllida Shaw, The Contribution of Culture to Regeneration in The UK : A Report to the DCMS, 2004, p.4.

3) Peter Roberts, “The Evolution, Definition and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Peter Roberts and Hugh Sykes(eds.),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London: SAGE 2000.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⁴⁾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그동안에 물리적 환경 개선이 중심이었던 재개발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1-2. 도시재생의 접근방법

도시재생은 현재 물리적 재개발 방식에서 장소 특정한 재생 방식 중심으로 변화하며 경제 가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써 문화적 요소나 공공미술을 매개로 하는 장소 가치 개발 방식이 추구하고 있다. 특정 장소에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도시재생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 산업을 연결시켜 협업의 개념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까지 접근을 꾀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소외된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커뮤니티의 회복 등 종합적인 장소 중심적인 방식을 통해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관주도의 보수적 계획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실현시켜야 한다. 지역 자산,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 사회, 경제적 재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도시재생은 단순히 지역의 환경이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이 공공미술과 결합이 된다면 단순한 지역 환경 변화의 개념을 넘어서 지역 전반에 선했던 영향력을 동반하는 변화의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한 도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의 화합과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그만큼 지역 공동체

의 역할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 주민들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이끌어내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은 본 연구의 하나의 전제가 된다.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 지려면 문화 예술 시설 및 작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문화 예술 지구를 조성하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다방면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한 도시에서 나아가 다른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2-1-3.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

도시재생은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도시 문제의 대응 결과로, 개념 또한 국가별, 도시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도 여러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국가와 도시마다 접근 방식과 초점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 경제 상황,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대표적 사례들이 있다. 영국과 한국은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며 공동체와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민간 자본을 통한 상업적 재생이 주를 이루고,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국가별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

국가	핵심내용	특징
영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공공과 민간의 협업
미국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	민간 자본 주도
일본	지역 사회 재생을 위한 마을 만들기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 고령화 사회의 주거 문제와 지방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공공 주도의 생활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
프랑스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통한 문화 중심 재생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문화적 자산 활용,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중시

2-2. 공공미술의 이해

2-2-1. 공공미술의 정의

공공미술(Public Art)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거나 전시되는 예술 작품을 의미하며, 특정 장소에 맞춘 설치미술이나 공간 자체를 위한 디자인 등을 포괄한다.⁵⁾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정의), (2024.9.20.)

공공미술(Public Art)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존 윌렛(John Willett)이 1967년 저서 《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아트 디렉터, 화상, 큐레이터, 평론가, 수집가 등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적 활동이 일반 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비판하며, 대중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술 개념으로서 공공미술을 제안하였다. 즉, 윌렛은 전시장 내부의 미술과 외부의 미술을 철저히 구분하며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⁶⁾

2-2-2. 제도적 관점의 공공미술 개념변화

1980년대에 접어들며, 주민 참여와 예술가의 사회적 인식을 중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이 등장했는데, 이를 수간 레이시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녀는 공공미술이 공동체 지향적이고 사회적 쟁점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공미술의 또 다른 기반을 제시하였다. 맥컴 마일즈는 공공미술의 가치를 "사회적·생태적 치유를 통해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역량 강화를 돕는 것"⁷⁾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공공미술을 관객의 접근성 관점에서 바라보며, 관객이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예술 교육의 역할, 그리고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예술 형태에 관심을 두었다. 공공미술은 기존 모더니즘 미술의 형식을 거부하고, 수용자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미술로 출발하였다.

존 윌렛이 공공미술의 개념을 제시한 이후 50여 년간 공공미술의 개념은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Space), 도시계획 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 그리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의 네 단계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양현미·윤태건은 공공미술에 있어서 설치 장소에 대한 초점이 다양한 방법과 장르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한다.⁸⁾(표 2 참조)

[표 2] 공공미술의 개념과 특성

구분	개념 및 특성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개념	미술작품을 통해 정부 건물의 미적 가치를 향상시킴
	특성	프랑스 1퍼센트법,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CSA).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s	개념	공원과 광장 등 공공공간의 활성화.
	특성	순수미술 위주에서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 반영.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개념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의 공공공간을 인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네트워크화.
	특성	미술품 이외에 미술가가 디자인한 공공시설물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영역 확장.
뉴 장르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	개념	미술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의 증진과 시민 문화 공동체의 형성
	특성	시민에 대한 문화, 교육적 효과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 영화, 비디오, 공연까지 영역 확장.

2-2-3. 공공미술의 국가별 개념

공공미술은 공공성을 내포한 미술로서,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공공미술에서 말하는 공공성은 공공공간과 연관되어 공공의 장소를 의미하거나 공공적인 이슈나 목표를 의미와 같은 공공적 관심을 뜻하기도 하고 공공자금과 같은 재원의 출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공미술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공공미술이란 미술과 공공성이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열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처럼 공공미술은 점차 공동체 형성과 과정, 주민 참여의 요소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공미술 개념의 확장은 결국 지역사회의 요구와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제시된 장르의 공공미술에서는 공공미술이 미술과 삶을 분리하는 모더니즘 미학을 넘어서는 대안 미술(Alternative Art)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특히 최근에는 뉴장르 공공미술의 개념이 발전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Project'라는 단어를 '공공미술'에 붙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공미술'의 개념은 이미

5) 서주환, 지소강, 환경 조각 작품에 미치는 주변 경관의 시각적 영향력 분석,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0. 16호, p.14. 참조 후 재인용

6) 김현정, 현대 공공공간과 공공미술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 제16권 제2호, p.148. 참조 후 재인용

7) Miles M. Art, Space and the City: Public Art and Urban Futures. London: Routledge, 1997 참조.

8) 양현미, 윤태건,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 :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학회, 2004. 16집, p.183.

9) 문화관광부,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2006. p.22.

10) 양현미, 윤태건, op.cit, p.179. 참조 후 재인용

현재의 복잡한 공공미술의 실천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공동체 지역사회와 같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공공미술의 개념은 프로젝트 성격의 공공미술 사업방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표 3]에서와 같이 국가별로 공공미술의 개념 또한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개념들 역시 설치 위주의 조형작품에서 협업작품, 퍼포먼스, 환경, 시각예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3] 국가별 공공미술의 개념¹¹⁾

구분	개념
미국	- 공공적 공간에 설치되는 작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동 가능하거나 임시로 설치된 작품까지 포함하며 각 주에서 규정한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조형예술작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퍼포먼스를 포함한 예술 전반으로 개념 확장
캐나다	- 밴쿠버에서는 공공미술에 사용될 수 있는 작품은 예술가의 창작품과 협업 작품으로 한정 - 장르는 조각, 회화, 설치, 비디오, 필름, 건축, 사진, 조경, 도자기 등으로 규정
호주	- 호주서부에서는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놓이는 예술가가 창작한 영구적 또는 임시로 설치된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며 전통적으로 갤러리 밖에 설치된 조각, 공공벤치, 벽화를 의미하였음 - 현대에는 사람들이 듣거나 만질 수 있고 타고 오를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규정
영국	- 공공장소나 건축물의 일부로 영구적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각 예술 작품으로, 조각, 조명, 거리 가구, 도로, 레일, 간판 등을 포함하는 규정 - 지역마다 공공미술의 정의가 달라지며, 공공미술의 정의를 확장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영역과 관련된 실천이나 프로세스를 모두 공공미술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공공예술'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
프랑스	- 초기 공공미술은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이나 도시 계획 차원에서 설치되는 작품에 한정 - 기금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외의 공공장소에도 설치되는 예술작품으로 그 범위가 확장
독일	- 공공미술은 공간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개인적인 공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도시 공간, 공공건물, 거리, 공원, 보행자 구역, 자연경관 등 다양한 공간을 포함 - 설치 장소는 주제에 따라 장소 특성에 맞게 구현되며, 도시계획적인 주제로도 진행
북유럽	- 덴마크는 공공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거나 접근 가능한 장소에 위치한 예술 작품 또는 프로젝트로 정의되며, 이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주로 거리, 공원, 건물 등 공공장소에 설치 - 스웨덴은 공공건물의 예술 장식을 통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현대 미술 표현 방식을 포괄

11) 조혜리안, 공공미술의 장르개념과 그 실천사례 연구-참여적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7-8 참고 후 재구성

이처럼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는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대체로 대중과 공공성 요소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공공미술이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공공의 영역과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공공미술의 특성

도시계획의 관점이 초기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면서 공공미술 역시 점차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공공'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 확장됨에 따라, 현대의 공공미술의 범위 또한 벽화부터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문화 프로그램,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범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들'¹²⁾로 정의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 공공미술은 단순히 조형적 예술 작품에 그치지 않으며, 형태나 재료 등 기존의 예술 작품과 달리 물리적, 비물리적 경계를 넘어 도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주민, 전문가가 협력하여 지역의 역사,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장소적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김혜진(2010)은 현대 공공미술의 효과를 첫째, 공공미술의 정서적 측면에서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애郷심을 고취하는 효과. 둘째, 공공미술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인구 유입, 교육 수준 향상, 정신 건강 개선,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 감소, 인권 또는 사회 정의에 대한 행동 강화,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의 효과. 셋째, 공공미술의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 넷째, 공공미술의 경제적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투자 촉진과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 등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다.¹³⁾

이와 같이 현대 공공미술의 특성은 앞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확인된 도시재생의 관점과 긴밀히 연결된

12) 김정민, 유우상, 현대 공공미술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협회, 2021. 제37권, 제6호, p.128. 재인용

13) 김혜진, op.cit, p.201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직접적 연관을 갖는다. (표 4 참조)

[표 4] 도시재생의 네가지 측면과 공공미술의 전략⁴⁾

도시재생		공공미술
측면	기능	전략
물리적	공간적 기반형성	공간의 활성화 공간에 대한 접근성 향상
	경제적	지역경제 성장
사회적	주민 역량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주민간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역 커뮤니티 강화
	문화적	공공 가치 실현
문화적	지역만의 역사, 문화 등 정체성 확립	지역만의 역사, 문화 등 정체성 확립 문화적 측면의 공적 가치실현
	문화적 측면의 공적 가치실현	

이러한 측면을 도시재생과 공공미술과의 관계로 정리하면, 첫째, 도시재생의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 기반 조성은 공공미술의 공간의 활성화와 공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연계된다. 둘째, 도시재생의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성장은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결된다. 셋째, 도시재생의 사회적 측면에서 주민 역량 강화는 공공미술의 주민들간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과 지역 커뮤니티 강화로 연결된다. 넷째, 도시재생의 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의 가치실현은 공공미술에 있어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측면의 공적 가치실현과 연결된다.

이처럼 현대의 공공미술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의 공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며,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방향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3. 사례 연구

3-1. 사례 선정

3-1-1. 서울시 [서울은 미술관]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프로젝트 개요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미술의 근본 목적이 효율성과 상업적 이익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도시를 시민이 머물고 서로 만나고 교감하는 문화적 장소로 변화시켜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은 미술관」은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미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도시공간에 신선한 예술적 상상력과 인간적 정취를 담고, 사라져가는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으로서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서울을 만들고자 하였다. 작품구현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화, 환경,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서울의 도시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해 일상적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지만 시민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해 새로운 예술 경험을 선사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¹⁵⁾는 의의를 담고 있다.

3-1-2. 사례 선정 기준

사례는 서울시의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프로젝트로 진행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작품 중 대상지가 노후화되고 버려진 공공공간에 공공미술을 적용한 사례로, 서울시 「내 손 안의 서울」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¹⁶⁾ 중 홍제유연, 도킹서울, SAM932를 대상으로 하였다. 세 가지 사례의 추진 전략, 주체, 과정 등을 살펴보고,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되는 공공미술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를 분석한다.

3-2. 사례 분석의 틀

평가 요인에 따른 세부 평가 요소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본 연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도시재생의 네 가지 측면과 기능, 전략을 어떻게 공유하고 도시재생 추진에 있어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였다.

15) 서울은 미술관 (2024.12.30.) www.seoulismuseum.kr/seoul/index.do?content=about.do

16) 내 손 안의 서울 (2024.12.30.) www.mediahub.seoul.go.kr/archives/2012092

14) 김정민, 유우상, op.cit.

[표 5] 평가 요소¹⁷⁾

요인	평가 요소	
전략	목적	사업의 배경 및 목표
	주제	사업 계획 및 콘셉트
주체	운영 주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주체
	수행 주체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주체
	참여 주체	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단체
과정	기획	추진 배경과 추진 방법
	진행	추진 절차와 작품 및 프로그램

3-3. 사례 분석

3-3-1. 홍제유연 프로젝트

서울시에서는 지역단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홍제천 13.9km구간 중 유진상가로 인해 단절되었던 산책로를 개통하면서 오랜 세월 버려졌던 지하공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5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산책로 반대측 공간을 활용한 야외미술관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단절된 시간과 동선을 예술작품을 통해 연결하고 새로운 공공미술에 대한 실험을 하는 곳이자 다양한 주민 참여활동이 유연하게 이어지는 지역문화공간으로 환원하고자 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과 전통상권이 함께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아름다운 하천변에서 예술과 함께 어울려 심을 발견하는 생동감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홍제유연의 프로젝트 적용 전, 후

또한, 공간의 역사 보존을 위하여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물과 어두움을 활용하여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순환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획하여 홍제천을 걷는 시민들이 잠시 멈추어 예술을 감상하고, 도심에서의 지친 삶을 예술로 위로를 받는 지하 명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홍제천은 흐르는 건천이 있고 년 1~2회 성인높이까지 침수되는 특수성, 유진상가, 인왕시장과의 공간적인 연계성, 유진상가와 인접지역의 공간적, 인문학적, 사회문화적 현황 분석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품격 높은 예술 플랫폼을 조성하여 다양한 참여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이 필

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아우르는 공공미술이 필요하였으며 ‘주민과 공간의 화합 그리고 그들의 소통과 치유의 장소로서 펼쳐지는 예술이라는 공간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지상의 유진상가 건물과 도로를 지지하는 100개의 기둥이 홍제천을 가로지르는 지하의 땅, 이 특수한 풍경은 열린 물길을 넘어 장소 특정적인 문화예술을 이끄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변화의 서두로 공공미술을 통해 예술의 유연한 사고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공공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표 6 참조)

[표 6] 홍제유연 프로젝트 구현 방식

구분	내용	
목적	새로운 공공미술에 대한 실험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환원	
주제	주민과 공간의 화합, 그들의 소통과 치유의 장소로서 펼쳐지는 예술공간	
구성		
작품	작가 작품	시민참여
	두두룩터, 온기, 숨길, 흐르는 빛, 빛의 서사, sun mmom mmom sun, um., 미장센등 7개의 작품으로 구성	홍제 마니차, 홍제유연 미래세대계등 2개 작품으로 구성
과정	운영주체	서울시
	수행 및 참여주체	다울림(주), 서대문구, 홍제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 인왕시장 상인회, 홍제동 주민
과정	계획	실행
	비물질을 활용한 실험적 성격의 공공미술	공간의 연결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 공공미술 작품 배치
특징	-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비물질(빛을 활용), 사운드 아트 등 실험적 작품으로 구성 - 하나의 작품이 아닌 공간적 특성과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 - 시민참여 작품 구성	

17) 김정민, 유우상, op.cit.

3-3-2. 도킹서울 프로젝트

도킹서울 프로젝트는 (구)서울역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30년간 방치되었던 시설물의 독특함을 살려 현실적인 공공미술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폐 주차장의 나선형 입·출구 2곳이 중점을 감싸는 독특한 공간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울로 7017의 분기점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주차 기둥의 내부와 외부를 작품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역 일대 공공미술 자원들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공공미술을 통한 문화재생과 지역의 비전을 제시한 프로젝트이다. 또한, 현실적 공공미술 플랫폼이라는 주제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획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근거를 구성하고, 공간이 지닌 다양한 특성을 과학적 시야로 해석했다.



[그림 2] 도킹서울의 프로젝트 적용 전, 후

램프 내부에 설치된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들과 램프 공간의 특성, 관객들의 감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구성하며, 전문 지식과 과학적 시선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과 예술이 맞물리는 “도킹 지점”을 찾아낸다. ‘도킹’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여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순간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누군가와 만남을 위해 역으로 향하는 자동차들이 길을 지나쳤지만, 지난 30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구도심의 버려진 공간은 다시 이곳을 연결하는 공공미술 작품을 통해 오랜 과거와 새로운 미래를 만나고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게 된다. 예술을 통해 ‘도킹 서울’로 재탄생한 폐쇄램프는 공간과 작품을 매개로 보이지 않는 머나먼 시공간과 접속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세상과 끊임없이 도킹을 시도하는 예술을 따라가다 보면, 익숙한 세상을 넘어 예술이 이끄는 드넓은 우주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킹서울의 작품 감상은 작품이 구성된 창작 방법론에 따라 소통과 공감의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감상자는 각자만의 창의로 작품의 세계의 관통을 창작한다. 이 과정에서 작품 앞에서 느끼는 감각의 거리, 빠르고 느린 시간의 인식, 무겁고 가벼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표 7 참조)

[표 7] 도킹서울 프로젝트 구현 방식

구분	내용
목적	30년간 방치되었던 (구)서울역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구조적 독특함을 살려 현실적인 공공미술 플랫폼을 구현.
주제	전문 지식과 과학적 시선을 바탕으로 과학과 예술이 맞물리는 ‘도킹 지점’을 찾아내고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여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공간
구성	[하향램프] - 이동하는 일상 ● 그는 동글게 집을 돌아갔다. (양정숙) ● 관측지점 (디폴트) [중앙 홀] - 푸른태양 무대 ● 깊은 표면 (정소영) ● 푸른별 (탐코워크) [상향램프] - 생명을 이루 ● 나의 우주에 (서민참여작) ● 생명의 그늘 아래 (김주현)
작가 작품	그는 동글게 집을 돌아갔다. 관측지점, 깊은 표면, 푸른별, 생명의 그늘아치 등 5개 작품으로 구성
시민참여 작품	나의 우주색
운영주체	서울시
수행 및 참여주체	디올림(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한화(주),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시민
과정	계획 폐쇄된 주차램프를 공공 나선형 구조의 공간과 실행

	미술 플랫폼으로 구성	주차램프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도 킹지점을 과학과 예술 의 결합으로 적용
특징	- 장소적,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공간 구성. - 공간적 특성과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 - 시민참여 작품 구성	

3-3-3. SAM932 프로젝트

가락시장 사거리에 2004년 이후 가동을 멈춘 대형 정수탑을 활용한 “SAM932”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시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용하는 예술적인 장소만들기 실현을 목표로 진행되었다.가락시장 사거리 일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노후하고 버려진 공간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던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을 송파구 녹지조성(공원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상문화향유 명소로 활용하고 송파구 일대 유무형의 인프라, 콘텐츠 등의 시너지가 창출된 사례이기도 하다. 대상지의 역사, 현재, 미래의 다층적 맥락을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실행되어 송파구 사거리 인근 대형 구조체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림 3] SAM932의 프로젝트 적용 전, 후

SAM932는 32m의 정수탑에서 시작하여 ‘물’의 생명 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며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예술을 통해 새롭게 솟아나는 ‘샘’은 ‘물의 소중함’에 대한 잊고 있던 가치를 되찾고, 기록하고, 나누는 장소로 구동된다. 물과 환경에 대해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공공 미술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통해 친환경 미래를 위한 인식개선과 실천적 역할을 도모하고, 공생하는 공공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이러한 공공의 의미는 강연, 교육, 시민참여 작품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시민참여 작품은 정수탑 내부 ‘바다의 시간’이

라는 작품을 작가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여 설치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바다의 시간은 물이 지구
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고 변화되고 있는 바다의 해수면을 상상
하며 만든 수백개의 조각 작품이 수직으로 세워져 아
름다운 물의 표현을 이루며 자연의 기적적인 생명력과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미래로 나아가
는 희망의 가능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표 8 참조)

[표 8] SAM932 프로젝트 구현 방식

구분	내용	
목적	시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용하는 예술적인 장소만들기 실현	
주제	예술을 통해 새롭게 솟아나는 ‘SAM932’는 ‘물의 소중함’에 대한 잊고 있던 가치를 되찾고, 기록하고, 나누는 장소로 구동	
구성		
작품	작가 작품 레인베일	시민참여 작품 바다의 시간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주체	서울시	
수행 및 참여주체	디올림(주), 송파구, 서울농식품공사, 가락농수산물 상인, 서울시민	
과정	계획	실행
	- 송파구 공원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 공원 조성, 공공미술 각각 예산 편성	공원 조성 단계에서 부터 공공미술 주제와 작품과의 연계성 및 조화 검토 및 의견수렴
특징	- 공원조성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추진 - 지속가능한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 - 시민참여 작품 구성	

3-4. 소결

각 사례의 성격은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 공간이나 작품 구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존재한다. 첫째, 장소의 역사적·지역적 맥락을 재해석해 고유한 정체성을 구현한다는 점. 둘째, 버려진 공간을 지역문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 셋째, 시민들이 작품 구성에 참여한다는 점. 넷째, 조형적 작품을 넘어 공간과 프로그램 전체를 공공미술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과거 작가 중심이던 공공미술은 이제 시민이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호 소통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시에서의 경험과 사회적 과정이 주제와 아이디어로 변모해 공공의 이슈로 자리 잡고, 민주적이고 다각적인 과정 중심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현대 도시에서 공공미술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탐구하며, 공공미술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시의 물리적 영향만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재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도시재생과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와 발전과정, 국가별 개념과 특성을 통해 현대 공공미술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재생의 네 가지 관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은 사례로 선정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추진 방식과 도시재생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점에 연계된 공공미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공공미술이 도시재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들은 도시재생의 네 가지 관점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세 가지 사례 모두 도시의 방치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도시 환경과 기능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반영한 공공미술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지역의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예술과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셋째,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운영 주체, 시행 주체, 참여 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균형과 협력의 과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공공미술은 예술의 질적 측면보다 정치적, 인종적,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현대 도시가 문화 수용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관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현대 공공미술이 도시재생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공미술과 도시재생의 관계를 분석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측면에서 공공미술이 수행하는 역할과 긍정적인 영향을 실질적인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미술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향후 공공미술의 효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문화관광부,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2006
2. 김정민 외 1인, 현대 공공미술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학회, 2021.
3. 김현정, 현대 공공공간과 공공미술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 제16권, 제2호.
4. 김혜진,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 한국콘텐츠학회지, 2010, 제10권, 제8호
5. 서주환 외 1인, 환경 조각 작품에 미치는 주변 경관의 시각적 영향력분석,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0, 제16호.
6. 양현미 외 1인,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 :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학회, 2004, 제16집.
7. 조혜리안, 공공미술의 장래개념과 그 실천사례 연구-참여적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8. Graeme Evans and Phyllida Shaw, The Contribution of Culture to Regeneration in The UK : A Report to the DCMS, 2004.
9. Miles M. Art, Space and the City: PublicArt and Urban Futures. London: Routledge, 1997.
10. Peter Roberts, "The Evolution, Definition and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Peter Roberts and Hugh Sykes(eds.),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London: SAGE
11. 예술문화위원회(Denmark Art Council) 정의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9.20.
13. www.seoulismuseum.kr
14. www.mediahub.seoul.go.kr